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및 창업의도 비교 연구*

김용태**

[국문요약]

최근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따라 대학 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및 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학이 축적한 연구 성과와 기술력, 인적 자원을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의 기반으로 연결하고자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내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창업 강좌를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로 분리하여 각 수강생간의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및 창업의도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90개의 설문 응답 중에서 345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분석으로 회귀분석은 SPSS 23을 활용하였고, t-test를 통해 수강생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첫째, 창업교육 수강생의 기업가적 역량은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적 태도는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 의도 간에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 강좌의 유형에 대한 수강생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의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의도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향후 대학 내 중장기적인 창업교육 커리큘럼과 교과목 개발, 우수한 교수자 확보 및 연구 지원,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 양질의 강의 계획서 준비 등을 통한 정규 창업 강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창업의도, 정규 창업 강좌, 비정규 창업 강좌

* 이 논문은 2023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

** 제1저자,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디지털융합창업전공, 부교수/전공 주임, ytkim@nsu.ac.kr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해외 선진 대학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을 확산함으로써 청년 기업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경기침체 극복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대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 전국 권역별 53개 대학을 창업교육혁신 선도대학(SCOUT, Start-up CO-Up university for Transition of edu)으로 지정하고 창업교육 선도모델 개발 및 운영,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2023)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내 창업 강좌수는 2018년 13,905개에서 15,500개(2021년 기준)로 증가하였으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가 219개에서 261개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가 183개에서 202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제1·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국 대학에 창업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규 창업교과와 다양한 비정규 창업프로그램 등이 확산되었고, 학업중단 없는 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휴학제 도입, 기술기반의 교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창업 겸직제도 및 창업 친화적 인사제도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많은 대학들이 창업교육의 목적 및 효과, 효율적인 교수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김용태, 2018).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과 적극적인 대학의 노력으로 창업교육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 내 창업교육의 양적 성장도 수도권 또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 창업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 대학 내 창업전공 교과목(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2,295개, 충청권은 1,610개, 대경강원권은 770개, 동남권 356개, 호남제주권 351개로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23).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격차는 모두 큰 상황이며, 상위 대학으로의 편중화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반대학의 경우 하위 20% 대학 대비 상위 20% 대학의 창업 강좌 평균 이수학생 비율이 수도권의 경우 67.8배, 강원·충청권은 14.4배, 경상권은 26.9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창업교육의 지역 및 대학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대학을 비롯한 창업 전문교육기관의 창업교육 커리큘럼이 단편적이고, 단발적인 비교과교육에 집중되고 있으며(최종민·양영석, 2012),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여 교육이 이뤄지다 보니 실무적인 역량 강화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윤선·이일한, 2022). 이러한 창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창업교육을 전문성과 다양성으로 구분한 연구가 해외에서는 진행되고 있으며(Dutta, Li & Merenda, 2011), 국내에서도 창업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한가록·장유진·이재은, 2021)를 통해 이론적인 지식 습득이외에도 다양한 경험 기반의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창업강좌와 비정규 창업강좌 참여도에 따라 창업의지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김준호·양동우, 2018), 창업교육과정의 유형이 기업가적 역량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대학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이론 중심의 정규 창업 강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비정규 창업강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및 창업의도

* 본 연구에서 ‘정규 창업강좌’라 함은 정규 학점이 부여되는 15주차 이상의 강의계획서에 기반한 창업 강좌로 정의하며, ‘비정규 창업강좌’라 함은 창업 특강, 창업캠프, 창업멘토링 등 정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창업교육혁신 선도대학(SCOUT)지원사업의 핵심성과지표로 정규 창업 강좌를 강조하고 있다.

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학습자의 기업가적인 역량과 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기반한 정규 창업강좌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교육 수강생의 창업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

창업교육이란 예비 창업자 또는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역량,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이러한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기업가적인 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e) 및 기업가적인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를 고취시켜 창업에 도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창업교육은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전인적 교육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역량(competence)과 태도(attitude)를 함양시키고 기업가적인 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강화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 및 기술(skill)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태도 함양을 통해 궁극적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Fayolle, Gailly & Lassas, 2006). 창업자가 초기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기업가적 태도 및 역량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 및 기술 등을 가르칠 수 있으며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으며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Timmons, 1994). 실제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노하우를 전수 받는 학습과정을 통해 창업 이후 실패를 줄여주는 역할도 가능하다(김용태, 2017). 또한 창업교육은 창업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미래의 창업가가 되기 위한 기업가적인 역량과 태도를 육성하는 내용을 체험하는 과정이며 조직 내에서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최종열·정해주, 2008).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교육은 중요하며 창업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인 다양한 역량들이 얻어질 수 있으며, 창업의도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홍·김용태, 2014).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가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이상문·정대성, 2003). 미국 MIT와 스탠포드대학 등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수의 졸업생이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적절한 창업교육 참가를 통해 기업가적인 역량과 태도는 함양될 수 있다(Ajzen, 1991).

2.2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재학 중에 다양한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공창업 사례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업가적인 역량 (entrepreneurial competence)을 강화해야 한다(김용태, 2017). 초기 창업기업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창업자의 적절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창업자의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구조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Aspelund, Berg-Utby & Skjevdal, 2005).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크게 기술적 역량, 경영관리 역량,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관리 역량은 마케팅 역량, 기술역량, 네트워크 역량,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국제적 성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기업가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의 성취역량, 창의성 역량,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 등을 활용한 바 있다. 이러한 기업가적인 역량은 개인이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과 직무 수행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개인의 잠재적 특성을 말하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창업 역량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Boyatzis, 1982).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가의 능동적인 삶에 대한 태도와 기업가로서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을 말하며(김선주 · 최승욱, 2016), 창업 의도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다(Maresch, Kailer & Wimmer-Wurm, 2016). 이러한 기업가적 역량은 개인의 태도와 이에 따른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양준환, 2018),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 성공의 주요 요인인 창업 의도와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재환 · 최민정, 2016; Man & Lau, 2000; Wiklund & Shepherd, 2003).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를 높인다면 창업 의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창업 의도는 개인이 기업가적인 행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동기 유발적 요인들 또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인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인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등을 필요로 한다(Diffley,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인 태도는 창업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1. 기업가적 역량은 기업가적 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태도(attitude)는 대상, 사람, 기관, 사건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며,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가 더 강하다. 초기 창업가의 기업가적인 의도는 개인의 기업가적 태도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업가적 태도를 높인다면 창업 의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박대한 · 성창수, 2019). 창업 의도는 새로운 계획된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적절한 요인으로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도를 통해서 이후의 행동을 예측한다(Maresch, Kailer & Wimmer-Wurm, 2016). 대학생들의 경력 개발과 관련된 계획된 행동들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며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을 제공하여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한정희 · 조건, 2015; 김용태, 2023; 김용태, 2021).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Armitage & Conner, 2001; Kautonen, Gelderen & Fink, 2015) 본 연구는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 의도간의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아래와 같이 가설로 수립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기업가적 태도의 매개효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는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jzen, 1991).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등이 연구되어 왔다(Diffley, 1982). 또한 창업 행동에 대한 의도적인 태도로서 창업의 전 과정의 첫 단계로 창업 의도를 정의할 수 있으며(호병환, 2016), 창업에 대한 의지의 변화, 도전 의식의 증가, 창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창업 의도라 정의하기도 한다(방진숙·김영대·최성용, 2019).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가들의 기업가적인 태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적 태도는 다음에 나타나는 창업 의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다(Armitage & Conner, 2001; Kautonen, Gelderen & Fink,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기업가적 태도는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 의도간에 있어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기업가적 태도는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 의도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2.5 창업 강좌 유형(정규 창업강좌와 비정규 창업강좌)의 조절효과

현재 대학 내의 창업교육 유형은 크게 보면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창업강좌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비정규 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박재환·안태욱, 2016).. 정규 창업강좌는 정해진 커리큘럼에 기반하여 해당 강좌의 강의계획이 수립되고 주차별 정해진 시간으로 이뤄지는 강좌이며, 비정규 창업강좌는 단기간의 강의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창업강좌로 창업특강, 창업캠프, 창업동아리, 멘토링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김용태, 2017; 배병윤, 2022).

정규 창업강좌는 기업가정신 함양,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지원 정책 등 예비 창업가에게 필요한 태도와 세부적인 스킬, 이론적 지식 그리고 창업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기반하여 교수자가 강의계획서를 수립하여 전달하며, 다수의 교수 또는 창업교육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규 창업강좌의 경우 교수자가 강의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강의하거나 교수자의 전문성, 교수법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교육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규 창업강좌는 대학 내에서 정규 학점이 부여되는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김용태, 2018).

비정규 창업강좌는 정규 창업강좌에 비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단기간에 집중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창업캠프, 실무중심의 전문가를 통한 창업특강, 순차적으로 실제 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멘토링 교육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배병윤, 2022). 정규 창업강좌의 경우 해당 대학 및 전공이 가지는 외부 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교수자 및 교수법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비정규 창업강좌의 경우 좀 더 자유로운 형태의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하여 실제 대학에서는 이러한 비정규 창업강좌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내 창업강좌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업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질 높은 창업교육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교육부, 2023), 양질의 교수자 및 교육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의 정규 창업 강좌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 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의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창업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마인드와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등을 길러주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최종인·양영석, 2012).

앞서 살펴본 창업강좌 유형에 따라 창업교육 수강생의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 및 창업 의도는 달라질 수 있다. 정규 창업강좌의 경우 기업가정신 함양과 기초적인 창업기회 탐색, 창업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필요한 사업 자원의 확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충분한 계획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무적인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교수자가 부족한 경우 단순한 이론교육에 머무르게 되어 오히려 수강생의 창업의도는 감소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김용태, 2017).

반면 비정규 창업 강좌의 경우 정해진 대학의 강의 환경 및 규칙 등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다양한 실제 창업경험과 역량을 갖춘 교수자가 정규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경험을 갖춘 교수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비정규 창업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 창업 강좌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의 상이한 학습 수준, 체계적인 진로 역량 함양 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비정규 창업 강좌의 경우 수강생의 역량과 수준에 따라 동일한 강좌의 경우라도 해당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규 창업강좌와 비정규 창업강좌 수강생 간에 발생하는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5. 창업강좌 유형(정규 창업강좌와 비정규 창업강좌)에 따라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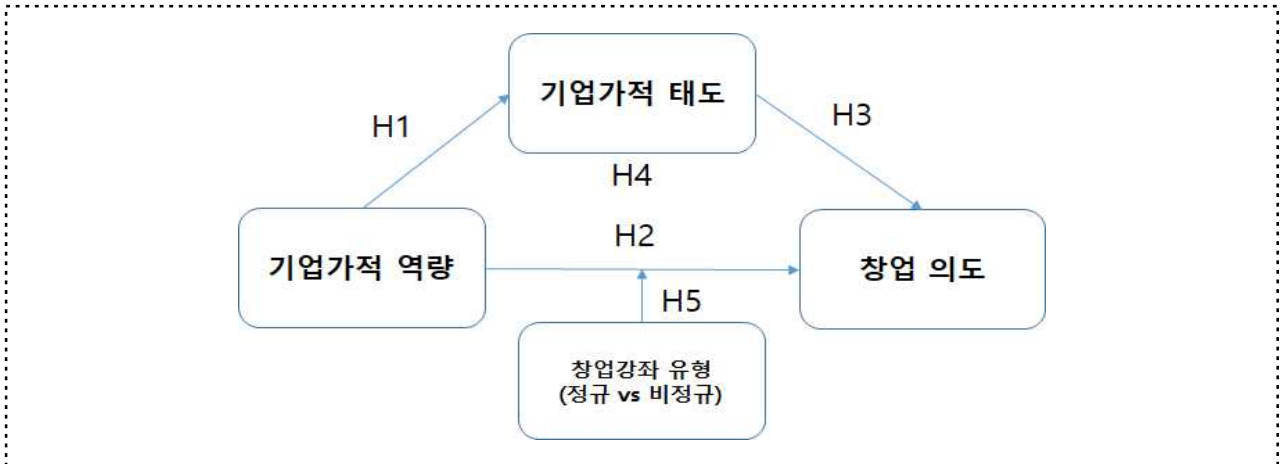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695명을 대상으로 응답이 부실한 35부를 제외하고 660부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 정규 343명은 정규 창업강좌(창업실습을 포함하여 학점이 부여되는 강좌), 317명은 비정규 창업강좌(창업특강 등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강좌포함) 수강생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설문지 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이, 그리고 수강생들의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창업 의도에 대한 요인 추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t-test를 통해 측정변수간에 있어 정규 창업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3.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정규 창업 강좌’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포함된 강의계획서를 갖추고 창업가 성향분석에서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링,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의 창업 시뮬레이션 등 창업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학점이 부여되는 창업강좌로 정의하였으며, ‘비정규 창업강좌’는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창업강좌’가 아닌 형태의 창업특강, 창업동아리, 창업 멘토링 등의 비정기적인 창업 강좌로 한정하였다. 측정항목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업가적 역량은 특정한 상황과 직무 수행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McClelland & Boyatzis, 1982; French et al., 1993),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가의 능동적인 삶에 대한 태도와 창업가로서 고려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김선주·최승욱, 2016). 창업 의도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추구하며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정의하였다(Maresch, Kailer & Wimmer-Wurm, 2016). 각 변수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측정항목 및 선행연구

| 연구변수 | 문항 | 측정문항 | 선행연구 |
|---------|----|---------------------------------|--|
| 기업가적 역량 | C1 | 나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Ramayah(2015), Boyatzis(1982), Spencer & Spencer(1993) |
| | C2 |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
| | C3 | 주위 사람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
| | C4 |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 | |
| | C5 |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익숙하다 | |
| | C6 |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 |

| | | | |
|---------|-----|--------------------------------|---|
| 기업가적 태도 | A1 | 나의 주변에는 창업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가 있다 | Krueger et al(2000) Maresch et al(2016) 김선주 · 최승욱(2016) |
| | A2 | 나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 |
| | A3 | 내가 사업을 망설이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때문이다 | |
| | A4 | 나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다 | |
| | A5 | 나는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고자 노력한다 | |
| | A6 |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 |
| | A7 | 나는 창업도 훌륭한 진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
| | A8 |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스토리를 접한다 | |
| | A9 | 우리 사회는 창업 등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 |
| | A10 | 나의 주변 사람들은 기업가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창업 의도 | I1 |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 Krueger et al(2000) Maresch et al(2016) Wimmer-Wurm(2016) Ajzen(1991) Shapero(1982) |
| | I2 | 나의 직업적 목표는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 |
| | I3 | 나는 졸업후 창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 |
| | I4 | 나는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 |
| | I5 | 나는 가까운 시일에 창업할 생각이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 |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2016), 창업지원모델 가이드, 대학생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식 조사 측정항목

IV.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조사에는 총 695명이 응답하였으나 응답 유효성 검증과 부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660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규 창업강좌 수강생의 경우 총343명으로 남학생이 54.5%(187명)로, 여학생 45.5%(156명)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년별 분석결과 저학년(1~2학년)이 56.4%, 고학년(3~4학년)이 43.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학년이 93명(27.1%)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의 전공분야를 살펴본 결과 공학계열 응답자 37.4%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인문사회계열(35.3%), 자연과학계열(13.5%), 예체능계열(12%), 기타(1.8%)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창업강좌 수강생의 경우 총317명으로 남학생이 66.6%(211명)로, 여학생 33.4%(106명)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년별 분석결과 저학년(1~2학년)이 55.7%, 고학년(3~4학년)이 44.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학년이 103명(32.5%)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의 전공분야를 살펴본 결과 공학계열 응답자 35.4%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인문사회계열(32.7%), 자연과학계열(15.4%), 예체능계열(13.4%), 기타(3.1%)순으로 나타났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 요인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과 직각 회전방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eigen-value 1.0 이상, 요인 적재값 0.4를 기준으로 했으며, 적합도 평가는 Kaiser-Meyer-Olkin 척도와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로 검증하였다. KMO 통계량은 전체 자료 및 개별 자료의 표본 적합도,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와 변수의 독립성을 평가하였다. Bartlett's Test of Sphericity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KMO값이 크게 나타나서 변수간의 상관행렬이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변수들의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활용하였는데 결과값으로 볼 때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의도는 문항 제거없이 모두 분석에 이용하였으나 기업가적 태도에서는 신뢰수준을 저해시킬 수 있는 4개 문항(A1, A2, A4, A5)을 제거하였다. 탐색적 연구 분야의 경우 0.6수준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다 (Nunnally, 1978).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측정항목 | | 구성요소 | | | Cronbach's a |
|---------|-----|------|------|------|--------------|
| | | 1 | 2 | 3 | |
| 창업의도 | I1 | .898 | | | .932 |
| | I2 | .875 | | | |
| | I3 | .876 | | | |
| | I4 | .803 | | | |
| | I5 | .805 | | | |
| 기업가적 역량 | C1 | | .843 | | .922 |
| | C2 | | .812 | | |
| | C3 | | .822 | | |
| | C4 | | .804 | | |
| | C5 | | .798 | | |
| | C6 | | .804 | | |
| 기업가적 태도 | A3 | | | .811 | .903 |
| | A6 | | | .754 | |
| | A7 | | | .688 | |
| | A8 | | | .721 | |
| | A9 | | | .633 | |
| | A10 | | | .649 | |
| 고유값 | | 4.3 | 4.2 | 3.5 | |
| 설명분산 | | 25.6 | 26.4 | 19.7 | |

KMO 표본적합도= .925, Bartlett 카이제곱 = 1065.113, 자유도(유의확률)= 125(.000)

* 요인추출 : 주성분 분석

4.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피어슨의 상관계수로 확인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각 측정변수들 간의 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 측정항목 |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태도 | 창업 의도 |
|---------|---------|---------|-------|
| 기업가적 역량 | 1 | .666* | .507* |
| 기업가적 태도 | .688* | 1 | .487* |
| 창업 의도 | .507* | .502* | 1 |

* p< 0.01

4.4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아래의 <표 4>와 같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별도의 외생변수로 통제하지는 않았다.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에 대한 회귀모형 적합도 검증결과는 F=1247.52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며, 기업가적 태도에 대한 기업가적 역량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²값도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0.354(p<0.01)). 기업가적 태도에 대한 기업가적 역량의 표준화 회계계수 β값은 0.576(t=35.456, p<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한 분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F=539,994(p<0.01)이며 창업 의도에 대한 기업가적 역량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²값도 0.257(p<0.01)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도에 대한 기업가적 태도의 표준회 회계계수 β값은 0.490(t=25.345,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의 분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F=576,798(p<0.01)이며, 창업 의도에 대한 기업가적 태도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²값도 0.253(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의도에 대한 기업가적 태도의 표준회 회계계수 β값은 0.493(t=23.192,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앞선 가설 1, 2, 3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박대한 · 성장수, 2019; 김용태, 2017)와 일치되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업가적 역량이 높으면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 의도가 높아지게 되며 기업가적 태도가 높으면 창업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창업의도 간 회귀 분석 결과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표준오차 | β | t | p | 통계량 |
|---------|------------|------|------|--------|-------|---|
| 기업가적 역량 | 상수 | .082 | - | 18.348 | .000 | R= .666, R ² =.354 수정된 R ² =.354 F=1247.524, p=.000 |
| | 창업의도 (가설1) | .018 | .576 | 35.456 | .000* | |
| | 상수 | .130 | - | 4.077 | .000 | R= .609, R ² =.257 수정된 R ² =.257 F=539.994, p=.000 |
| | 창업의도 (가설2) | .029 | .490 | 25.345 | .000* | |
| 기업가적 태도 | 상수 | .132 | - | 4.590 | .000 | R= .458, R ² =.253 수정된 R ² =.253 F=576.798, p=.000 |
| | 창업의도 (가설3) | .028 | .393 | 23.192 | .000* | |

* p< 0.01

기업가적 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활용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1단계로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태도에 미치는 유의성(β=0.576, p<0.01)과 2단계인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유의성을 확인(β=0.490, p<0.01)하였고, 마지막 3단계로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 의도에 대한 매개변수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β=0.320, p<0.01)이 2단계의 영향력(β=0.490, p<0.01)보다 작아야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작아진 영향력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 부분 매개효과,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개변수가 없어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설로 제시한 기업가적 태도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표 5> 기업가적 태도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 단계 | 모형 | 변수 | 표준오차 | β | t | p |
|----|--------------------|---|------|------|--------|-------|
| 1 |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태도 | 상수 | .082 | - | 18.348 | .000 |
| | | 기업가적 역량 | .018 | .576 | 35.456 | .000* |
| | | R= .666, R ² =.354, 수정된 R ² =.354, F=1247.524, p=.000 | | | | |

| | | | | | | |
|---|----------------------------|--|------|------|--------|-------|
| 2 | 기업가적 역량 -> 창업 의도 | 상수 | .130 | - | 4.077 | .000 |
| | | 기업가적 역량 | .029 | .490 | 25.345 | .000* |
| | | R= .609, R ² =.257, 수정된 R ² =.257, F=539.994, p=.000 | | | | |
| 2 | 기업가적 역량 x 기업가적 태도 -> 창업 의도 | 상수 | .139 | - | -.170 | .000 |
| | | 기업가적 역량 | .038 | .393 | 13.192 | .000* |
| | | 기업가적 태도 | .035 | .278 | 10.219 | .000* |
| | | R= .548, R ² =.283, 수정된 R ² =.283, F=359.203, p=.000 | | | | |

* p< 0.01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과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창업의도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기업가적 역량에서는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의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 창업 강좌 학습자의 평균값이 비정규 창업 강좌 학습자보다 높게 나타나 정규 창업 강좌 학습자들이 비정규 창업 강좌 학습자보다 기업가적 역량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가적 태도에 대한 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과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해석해 볼 때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의 기업가적 태도의 인식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창업의도에 대한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이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보다 창업 의도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창업의도 간 차이검증 분석

| 독립변수 | 정규 창업강좌 | | 비정규 창업강좌 | | t | p |
|---------|---------|------|----------|------|-------|-------|
| | Mean | SD | Mean | SD | | |
| 기업가적 역량 | 4.206 | .618 | 3.708 | .672 | 6.027 | .000* |
| 기업가적 태도 | 4.106 | .607 | 3.906 | .721 | 1.760 | .078 |
| 창업 의도 | 4.177 | .724 | 3.687 | .876 | 5.243 | .000* |

* p< 0.01

V.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대학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창업교육의 형태를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강생의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 의도 제고 등 창업교육의 제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규 학점이 부여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내의 강의계획서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인 기간 내 이뤄지는 정규 창업 강좌와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적인 역량과 기업가적인 태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 두 집단 간에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및 창업 의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 수강생의 기업가적 역량은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양준환, 2018; Baum et al., 2001; Wegwu, M. E. 2016) 에서도 다수 검증된 바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기업가적 역량은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업가적 태도 역시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대학 내 창업교육이 수강생의 기업가적 역량을 함양시키고 이는 기업가적 태도로 발전되어 궁극적인 창업 의도를 제고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학 내 지속적이고 꾸준한 창업교육을 확대하여 청년 창업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가적 태도는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 의도 간에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창업교육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이명훈, 2016; 박대한 · 성장수, 2019). 이러한 결과는 수강생의 창업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 창업 의도간의 관계에 있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적 태도에 대한 창업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충분한 기업가적 역량과 스킬에 긍정적인 기업가적 태도가 더해질 때 보다 높은 창업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규학점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 등의 유형에 따른 수강생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의 기업가적 역량 및 창업의도 차이가 일부 유의미하게 나타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규 창업 강좌 학습자의 기업가적 역량이 비정규 창업 강좌 학습자보다 높게 나타나 정규 창업 강좌 학습자들이 비정규 창업 강좌 학습자보다 기업가적 역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기업가적 태도에 대한 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과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의 기업가적 태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창업의도에 대한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이 비정규 창업 강좌 수강생보다 창업 의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인 수강생간의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 의도간 유의미한 차이가 시사하는 바는 대학 내 정규 창업 강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현재 다수 대학에서 외형적으로 많은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대학 창업교육에서 중장기적인 창업교육 커리큘럼과 교과목 개발, 우수한 교수자 확보 및 연구 지원,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 양질의 강의 계획서 준비 등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정규 창업 강좌보다는 비교적 단기간에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비정규 창업 강좌인 창업 특강, 창업 캠프 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체계적인 창업교육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된다면 자칫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창업교육을 통해 잘못된 창업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청년 창업가 육성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창업 강좌가 가지는 장점과 역할도 있겠지만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 태도 등의 단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정규 창업 강좌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학 내 창업교육 유형을 정규 창업 강좌와 비정규 창업 강좌로 분류하여 두 집단 간의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및 창업 의도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창업교육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문 대상자가 연구자의 소속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연구 집단의 대표성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역 단위의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 및 잠재적인 일반 창업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가적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 Sobel test 또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규 창업 강좌의 경우도 이수학점, 필수 및 선택과목 등의 차이에 따른 영향력 등으로 세분화되어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년, 전공분야, 지역 등과 창업경험 등이 변수로서의 영향력을 가지는지와 두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3),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 기본계획.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김기흥·김용태(2014). 창업 멘토링 교육 요인이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33-41.
- 김선주·최승욱(2016). 조직 구성원의 기업가정신 수준 (역량, 태도, CEO 지원) 이 기업의 기업가적 문화와 구조, 운영체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 디자인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4), 103-116.
- 김용태(2023),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연구**, 6(4), 103-124.
- 김용태(2021). 체험형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연구**, 5(1), 51-75.
- 김용태(2018).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간의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비교 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49-58.
-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 김윤선·이일한(2022). 대학생 창업교육이 창업기회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7(2), 189-213.
- 김선주·최승욱(2016). 조직 구성원의 기업가정신 수준 (역량, 태도, CEO 지원) 이 기업의 기업가적 문화와 구조, 운영체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 디자인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4), 103-116.
- 김춘호·양동우(2018), 대학생의 학점 및 비학점 창업교육 참여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교내 창업지원제도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3(4), 116-139.
- 박대한·성창수(2019). 대학 창업교육 이수 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및 기업가적 의도와 의 관계 연구-일반 대학 vs. 전문대학 차이검증. **취업진로연구**, 9(3), 91-110.
- 박재환·최민정(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9-19.
- 방진숙·김영대·최성용(2019). 이공계 대학생들을 위한 IT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4(6), 70-91.
- 배병윤(202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7(4), 115-125.
- 이명훈(2016).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간의 구조적 관계.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1(1), 44-67.
- 이상문·장대성(2004), 벤처창업교육과 창업정신 향상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경영교육연구**, 7(1), 7-25.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7(1), 7-25.
- 양준환(2018), The Effect of Rela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Capacity and Entrepreneurial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2), 138-149.
- 최종인·양영석(2012), 창업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벤처창업연구**, 7(1), 125-134.
- 최종열·정해주(2008). 경영학 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213-230.
- 한정희·조건(2015), 대학생들의 경력개발과 관련된 계획된 행동들이 창업실행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1), 111-118.
- 호병환(2016). *대학 및 사회의 창업지원과 대학생의 창업의지 간의관계: 자기 효능감과 위험 감수성의 매개효과와 멘토링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Aspelund, A, T Berg-Utby, & R. Skjevdal(2005), Initial resources' influence on new venture survival: a longitudinal study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Technovation** 25(11)), 1337-1347.

- Baum, J. R., Locke, E. A., & Smith, K. G. (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oyatzis, R. E.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Diffley, J. H. (1982). A study of women business owners and the importance of selected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related to educational programs. The University of Oklahoma.
-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 (2006).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0(9), 701-720.
- French, J. A., Williamson, P. D., Thadani, V. M., Darcey, T. M., Mattson, R. H., Spencer, S. S., & Spencer, D. D. (1993). Characteristics of medial temporal lobe epilepsy: I. Results of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Annals of Neurology: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Neurological Association and the Child Neurology Society*, 34(6), 774-780.
- Kautonen, T., Van Gelderen, M., & Fink, M. (2015). Robustnes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predi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9(3), 655-674.
- McClelland, D. C., & Boyatzis, R. E. (1982). Leadership motive pattern and long-term success in manag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6), 737.
- Man, T. W., & Lau, T. (2000).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f SME owner/managers in the Hong Kong services sector: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8(03), 235-254.
- Maresch, D., Harms, R., Kailer, N., & Wimmer-Wurm, B. (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versus business studies university program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04, 172-179.
- Nunnally, J. C. (1978). An overview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Clinical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A handbook*, 97-146.
- Timmons, J. A. (1999),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Burr Ridge, Illinois 5th Edition.
- Van Gelderen, M., Kautonen, T., & Fink, M. (2015). From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 actions: Self-control and action-related doubt, fear, and avers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0(5), 655-673.
- Wegwu, M. E. (2016). Distinctive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for competitive advantage for entrepreneurs in Rivers State.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18(8), 1-9.
- Wiklund, J., & Shepherd, D. (2003). Knowledge-based resourc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3), 1307-1314.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between Student taking Regular and Non-regular Entrepreneurship Courses*

Yong tae Kim**

Recently, with active policy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activation of entrepreneurship-friendly academic system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ies are actively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ctively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of university-based entrepreneurship in order to connect the research resul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human capital accumulated by universities as the basis for high value-added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divides the various entrepreneurship courses operated within universities into regular and non-regular entrepreneurship courses and seeks to empirically compare and analyze the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each student. Among 390 survey responses from college students, 345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udy. As a research analysis, SPSS 23 was used for regression analysis, and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were compared through t-test.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uden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Second, entrepreneurial attitud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in the types of entrepreneurship cours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and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between students taking regular and non-regular entrepreneurship cours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emphasize the need for continuous expansion of regular entrepreneurship cours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id- to long-term entrepreneurship education curriculum and subjects within universities, securing excellent instructors and research support, and preparing high-quality syllabuses using various teaching methods.

KeyWord: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Entrepreneurial Attitud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gular Entrepreneurship Courses, Non-regular Entrepreneurship Courses

*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ytkim@nsu.ac.kr